

광주 미술계 새해 새 도약 준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광주에 대형 갤러리를 오픈하는 등 경기침체로 위축돼 있던 이 지역 화랑가가 기축년(己丑年) 새해를 앞두고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미술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국내 대형 화랑들이 해외전시·아트페어 참여를 70% 가량 줄이는 감축 경영에 들어간 반면, 이 지역 갤러리들은 신설·확장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국내외 미술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내년 5월 개관을 목표로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버스터미널) 문화관' 2층에 '유스퀘어 금호미술관'(가칭·176평)을 조성하고 있다. '유스퀘어 문화관'은 영화관, 음악홀, 공연장 등을 갖춘 지상 6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이다.

유스퀘어 금호미술관은 금호 그룹 산하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에 운영을 맡겨 지역 작가들의 전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서울 금호미술관 등을 운영하고 있는 등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 유스퀘어 금호미술관이 지역작가들의 중앙 무대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근대 한국화단을 이끌었던 고희동, 도상봉, 오지호, 임직순, 백남준, 이우환, 김학기 화백의 대표작 등 금호미술관의 3천여점 컬렉션을 광주에서 볼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다.

광주시립미술관도 내년 7월에 중국의 대표적인 미술 공간인 다산쓰 798 예술특구에 작가 작업실과 전시 공간을 갖춘 '베이징 아트센터'(330m²)를 열기로 했다. 다산쓰 798 예술특구는 세계의 유명 갤러리들이 앉다

유스퀘어 금호미술관 내년 5월 개관

시립미술관 중국에 '베이징 아트센터'

나인갤러리 옛 무등갤러리 리모델링

꿔 입주하는 등 300여개의 화랑이 활동하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예술촌 '베이징 아트센터'는 현재 장소 섭외를 마치고, 내부 리모델링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개관 이후 해마다 지역 작가 12명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나인갤러리도 내년 1월 말 광주시 궁동 예술의 거리의 옛 무등갤러리 본관(일명 무등예술관)을 리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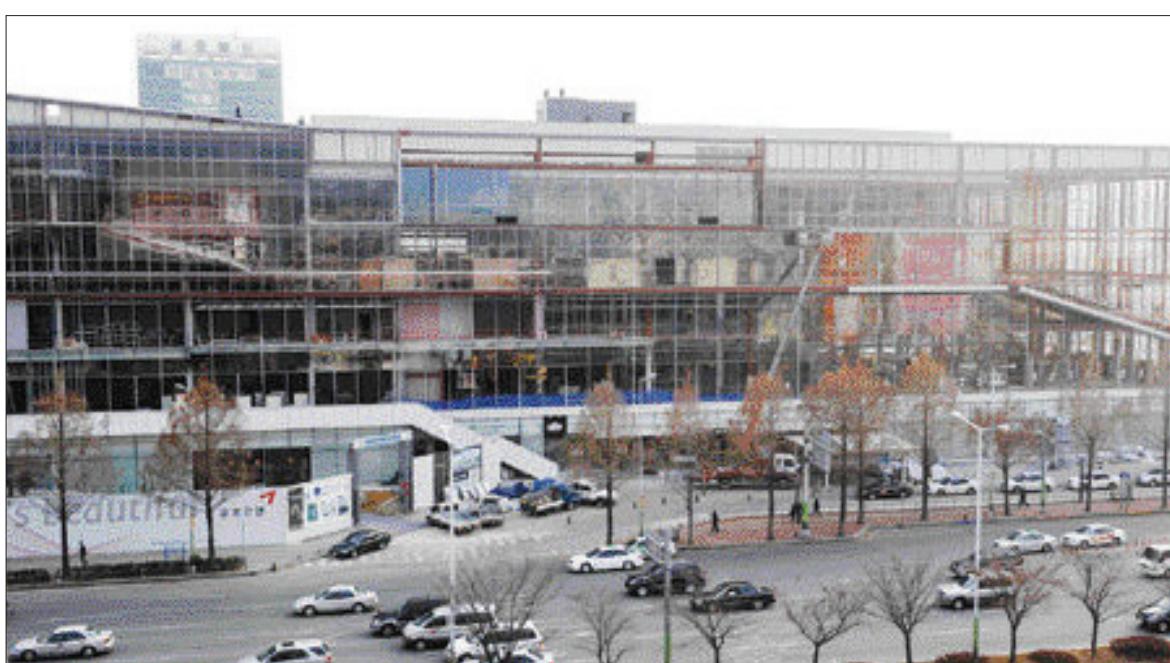
해 확장·이전한다. 나인갤러리는 건물 외벽에 대형 돌출형 조형물을 설치하고,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판매하는 아트숍도 조성하고 있다. 나인갤러리는 내년 2월 개관 기념전을 시작으로 지역의 젊은 작가를 발굴하고, 이들의 중앙·해외무대 진출을 돋는 기획전을 열 계획이다.

자단 5월 개관한 시안갤러리도 내년부터는 해외 아트페어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화랑협회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화랑협회에 가입하면 아트페어에 대한 정보 수집과 참여가 더욱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시안갤러리는 또 화랑이 작가의 생계와 작품 제작, 전시를 전폭 지원하는 전속작가 제도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2일~31일까지 예비작가 28명을 초대한 '초심'전을 열어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는 계획이다.

나인갤러리 양승찬관장은 "서울 지역 화랑들이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는 등 국내 미술계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지역 화랑들이 꾸준한 투자를 통해 국내 미술시장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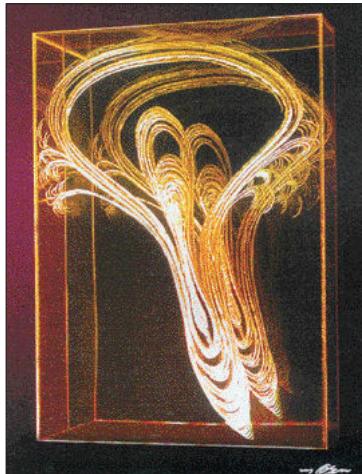
/오광록기자 kroh@kwanju.co.kr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내년 5월 광주시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에 미술관, 공연장, 음악홀을 갖춘 복합문화공간 '유스퀘어 문화관'을 개관한다. 사진은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유스퀘어 문화관' 전경.

/위작령기자 jrwi@kwanju.co.kr

무등갤러리 17일까지 '겨울 여자' 展



안유자 작 'light'

무등갤러리는 17일까지 안유자, 이매리(동신대), 조은경씨 등 3명의 여성 작가들을 초청해 '겨울 여자' 전을 갖는다.

안씨는 LED 조명을 아크릴 상자에 넣어 현대인의 불안한 정체성을 표현한 'light' 연작을 선보이고, 이씨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시하는 설치 작품인 'shoe의 초심' 등을 전시한다. 또 조씨는 천과 액자 등 혼합재료를 이용해 여성의 눈과 입술, 손톱 등을 집중 조망한 'emptiness' 등을 출품했다. 문의 062-236-2520.

/오광록기자 kroh@kwanju.co.kr

무등갤러리 옛 무등갤러리 리모델링

조선대 한국화 전공 졸업작품 展



배형민 작 '나의 길'

조선대학 미술대학 한국화전공 졸업생들이 오는 19일까지 조선대학 백화미술관에서 '제 58회 졸업작품' 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김동아, 김선아, 김이향, 박선미, 배형민, 백지훈, 서운경, 송옥희, 우정현, 천면언씨 등이 참여해 젊은 작가들의 특색 뛰는 작

품세계를 선보인다. 이들은 전통적인 수묵화를 비롯해 화려한 채색화와 추상의 세계를 넘나드는 한국화 작품을 전시한다. 문의 062-230-7832.

/오광록기자 kroh@kwanju.co.kr

"추운 겨울엔 따뜻한 연극"

연말에 관객 만나는 소극장 연극 3편

한겨울 추위를 따뜻하게 감싸줄 3편의 연극이 소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오 헨리 단막 페스티벌

극단 까치놀은 오 헨리의 단막 소설 3편을 움니버스식으로 엮은 '오 헨리 단막 페스티벌 3선'을 무대에 올린다. 24일~26일 공연 일번지.

성탄절을 맞은 가난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크리스마스 선물', 폐병에 걸려 생을 포기하려는 이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마지막 일새', 삼류배우이자 백수 건달인 소피의 일상을 통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경관과 찬송가' 등 세편의 작품은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전해주는 소품이다.

김영찬·김은광·임홍석·이영민·고길용씨 등이 출연한다. 티켓 가격 1만 5천원, 7천원. 문의 1544-5010.



극단 예린의 '맥베드'.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드'는 인간 내부에 잠재된 선과 악의 갈등과 끝없는 인간의

세익스피어 '맥 베드'

탐욕과 욕망을 그린 작품이다. 왕을 살해하고 권좌를 차지한 맥베드가 죄의식에 휩싸이면서 파멸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극단 대표 윤여송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김영채씨가 주인공 맥베드 역으로 출연한다. 그밖에 김종필·박정기·이소영씨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티켓 가격 1만 5천원.

문의 062-234-2244.
/김미은기자 mekim@kwanju.co.kr

소리꾼 한혜영씨 '수궁가'

18일 빛고을 국악전수관

소리꾼 한혜영씨<사진>가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이 진행하는 '목요 열린 국악 한마당' 무대에 선다. 18일 오후 7시 전수관 공연장.



'수궁 속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한씨는 미산재 '수궁가'를 선보인다.

을 2월 3시간에 걸쳐 '수궁가' 완창 무대를 연 바 있는 한씨는 3회에 걸쳐 '수궁가'를 다시 선보이고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 무대다.

전남대 국악과 출신으로 단국대 박사 과정에 재학중인 한씨는 판소리 뿐 아니라 가야금 병창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ju.co.kr

'무돌아트컴퍼니' 참가자 모집

지역문화교류재단

(제)지역문화교류재단은 '2008 예비 사회적 기업' 발굴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된 '무돌아트컴퍼니 사업단'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시각 예술 분야 기획 총괄, 공공미술프로젝트 개발·기획, 문화상품 등 디자인 개발 등을 담당할 기획파트와 창작지원, 전시 기획·진행 등 모두 8명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와 기획서, 포트폴리오 등이며 마감은 17일까지다.

직원으로 채용될 경우 분야에 따라 100만원~78만 8천원의 임금을 지급하며 4대 보험 가입, 성과급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근무 기간은 1년(주 5일 40시간)이다. 문의 062-234-2727.

/김미은기자 mekim@kwanju.co.kr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메가박스

구.린던약국사거리 ☎ 예매 1544-0600

1관 트와일리아 (12세) 최고급관

2관 오스트레일리아 (12세)

3관 트로픽 썬더 (18세)

4관 쏘우 V (18세)

5관 과속 스캔들 (12세)

6관 순정만화 (12세)

7관 오스트레일리아 (12세)

8관 기방난동사건 (15세)/**4/요일** (18세)

9관 트와일리아 (12세)

• 이프리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경정금 부과

총장로 5가 (전화번호) 228-2700

1관 오스트레일리아 (12세)

2관 아내가 결혼했다 (18세)

3관 미인도 (18세)

4관 서양골동양과자점 앤티크 (15세)

5관 바디 오브 라이즈 (12세)

6관 쏘우 V (18세)

7관 007퀀텀 오브 솔러스 (15세)

www.entercinema.co.kr

• 네고판권 특별·독점 주차장 300대 • 금·토 실어상영

•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실어 상영합니다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페스티벌 사무처(오전9시~오후11시)

한화시흥 영화시화관 • 예매: www.joycbo.com/ 1588-7941

상극장·하급극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복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역화재빌딩)

1관 오스트레일리아 (12세)

2관 트와일리엇 (12세)

3관 트와일리엇 (12세)

4관 쏘우 V (18세)/**4/요일** (18세)

5관 007퀀텀/순정만화 (12세)

6관 미인도 (18세)

7관 트로픽 썬더 (18세)

8관 기방난동사건 (15세)/**오스트레일리아** (12세)

9관 과속 스캔들 (12세)

10관 오스트레일리아 (12세)

*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실어 상영합니다

• 매일실어 상영합니다 *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페스티벌 사무처(오전9시~오후11시)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페스티벌 사무처(오전9시~오후11시)

• 무료주차 3시간